

# 재일제주인의 제주도 마을 발전에 대한 고찰\*

고 광명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 마을 발전에 대한 공헌을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일제주인은 제주도(제주도청, 교육청, 시청, 군청 등)를 비롯하여 각 읍·면·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마을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둘째, 재일제주인은 교육사업, 공공사업, 문화사업 등 제주지역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셋째, 재일제주인은 새마을 사업과 같은 도로포장, 전기·전화, 상·하수도 개설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넷째, 재일제주인은 가족이나 친척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섯째, 재일제주인은 제주도 마을 발전 향상에 한 축을 형성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설립, 교육시설 및 장학 지원, 비품 구입, 마을회관 건립, 노인회관 건립, 새마을 사업, 문화시설, 체육시설, 언론매체, 불우이웃 돕기, 이재민 성금, 도내 주요시설 건립 기금,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재일제주인의 제주도 마을 발전에 대한 공헌 활동과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키워드 : 재일제주인, 제주도, 마을 발전, 기증, 공헌

---

## 목 차

---

서론

제1장 재일제주인의 의미와 현황

제2장 마을 발전에 대한 공헌 활동

제3장 마을 발전에 대한 공헌 특성

결론

---

\* 본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3S1A5A2A01019043).

## 서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Diaspora) 중 제주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재외(在外)제주인은 정체성(identity)과 결속력이 강하여 고향에 대한 기여 등 여러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재외 제주인은 약 12만 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도외(道外)제주인(약 53만 명)을 합하면 약 65만 명이 제주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기·고광명 2014:9-29). 특히 디아스포라 국가 중 재일(在日)제주인<sup>1)</sup>은 2011년 기준으로 재일한인<sup>2)</sup> 545,401명 중 86,231명(15.8%)을 차지하고 있다(入管協會 2012:10-11).

재일제주인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병·징용 등)에 의한 강제 이주, 해방 이후 제주4·3과 한국전쟁을 피하고 노동자와 출가(出稼)해녀 등이 경제적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 대부분은 도쿄(東京) 미카와시마(三河島)나 오사카(大阪) 이쿠노(生野)구 등의 대도시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재일 제주인 커뮤니티(communitiy)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킨키(近畿)지방 56,025명(65.0%), 간토(関東)지방 25,788명(29.9%)으로 전체의 95%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가방제조, 신발제조, 자갈이나 고철수집 등 최하위 노동자로 생활하였거나 일본인들이 꺼리는 유리, 금속, 고무, 방적공장 등에 종사하였다(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2014:37). 오사카에서 최대 집주지역인 이쿠노구, 인접한 히가시나리(東成)구, 히가시오사카(東大阪)시는 중소 영세공업 집중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고광명 2014:18). 이 지역에는 고무제조업, 플라스틱, 봉제업, 샌달·슈즈, 피혁, 금속제품 등의 업종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면서 재일한인 사회의 생활을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庄谷恰

1) 본고에서 재일(在日)은 혈연·지연·학연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어 제주도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의 출신자에 비해 지역정체성이 강하다는 맥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재일제주인은 일본 이주의 다양한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본래의 한국국적과 조선국적, 그리고 귀화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한 거시적 개념의 제주도 출신자를 말한다.

2) 일본에 거주하는 한반도 출신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재일코리안, 재일한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동포, 재일교포 등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子·中山 徹 1997:95).

이들은 과거 일제(日帝)의 착취와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다. 일본 사회에서 온갖 멸시와 차별, 가난과 설움, 고된 노동과 비참한 삶 속에서도 제주도 출신 특유의 근면성과 강인한 인내심으로 모은 것을 고향 마을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였다.

또한 이국 생활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보다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더 걱정하여 아낌없이 기증(기부)해 왔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 밀려온 애향의 물결은 교량가설, 도로 확·포장, 상수도, 전화·전기가설, 마을회관 건립 등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외에도 제주도 지역개발을 위하여 교육(학교 설립, 교육시설 및 장학 지원)·문화(문화 및 체육시설, 언론매체) 분야를 비롯한 산업경제(관광·감귤·금융·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심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마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2007) 『愛郷의 보람-在日同胞寄贈実績』 자료 조사를 통해 재일제주인의 삶 속에서 고향에 애향심을 표현한 제주도 마을 발전에 대한 공헌 활동과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주도 출신자들을 지역사회에 일방적으로 물질을 제공해 주는 대상으로만 인식하거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증이나 공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sup>3)</sup>

## 제1장 재일제주인의 의미와 현황

### 1. 재일제주인의 의미와 범주

재외동포는 해외에 생활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한인동포를 말한다. 동포란 한 핏줄을 가진 같은 민족을 뜻하는 것으로 재외동포의 범주를 엄밀히 구분할 때

3) 재일제주인의 기증(寄贈)이나 공헌(貢獻)에 대해 후손들(3·4세 등)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이유는 국내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와 제주도 사회에서 반복되는 기증 요청이나 공헌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친인척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준다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제주도는 매년 도민 성금을 모아 재일제주인 1세대에게 마음을 위로하면서 재일제주인 사회와의 교류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①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한인, ②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한인, ③ 양국인 사이의 혼혈아까지 포함하지만 주로 ①과 ②를 말하며, 이주 동기, 형성 과정, 거주국 국민과의 관계에서 다른 양상을 띤다(고광명 2013:26).

그런 측면에서 재일제주인의 의미는 ‘재일동포(在日同胞)’의 개념을 원용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인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서, 일시 체류, 영주권자, 유학, 2·3세 등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 모두를 포함하는 사람을 말한다(고광명 2013:23). 결국 지역정체성을 가진 재일제주인은 타향인 현지 사회 속에서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와 땀으로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고향 제주도를 위해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일제주인의 범주는 일반적으로 조상이나 부모의 생활 근거지가 제주도이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 그들의 배우자와 2세 및 3·4·5세의 자녀들까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제주도 출신이면서 현지국가로 귀화한 사람, 그들의 2세 및 3세대, 일본으로 건너가서 정착하고 한국 주민등록을 소지한 제주도 출신자들까지 모두 포함하고자 한다.

## 2. 재일제주인 인구 현황

<표 1>은 재일한인과 재일제주인의 거주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재일한인은 간키(近畿)지방 218,166명(40.0%), 간토(關東)지방 199,881명(36.6%) 등에 전체의 76.6%가 거주하고 있지만 일부 재일한인은 주부(中部)지방 55,784명(10.2%) 등 기타 지방에 약간 분산되어 있다. 반면 재일제주인은 간키(近畿)지방 56,025명(65.0%), 간토(關東)지방 25,788명(29.9%)으로 전체의 94.9%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결국 재일제주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일한인들은 일본의 8개 지방(北海道, 東北, 關東, 中部, 近畿, 中国, 四国, 九州·沖繩) 중에서 2개 지방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재일한인과 재일제주인의 인구 현황(2012년)

(단위: 명, %)

거주 지역	재일한인		재일제주인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홋카이도(北海道)	5,226	1.0	342	0.4
도호쿠(東北)	10,694	2.0	891	1.0
간토(関東)	199,881	36.6	25,788	29.9
주부(中部)	55,784	10.2	1,605	1.9
긴키(近畿)	218,166	40.0	56,025	65.0
중고쿠(中国)	25,973	4.8	651	0.7
시코쿠(四国)	3,510	0.6	252	0.3
규슈(九州)	26,167	4.8	677	0.8
총수	545,401	100.0	86,231	100.0

자료: 入管協会(2012) 『在留外国人統計』에서 조사 작성.

### 3. 기존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으로 이주한 제주도 출신들이 제주도 마을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지금까지 재일제주인 연구는 대부분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연구가 피상적 접근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 상황 속에서 재일한인<sup>4)</sup>(재일제주인)의 지역사회 공헌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일제주인의 기증(寄贈)과 기부(寄附), 공헌(貢獻) 연구와 관련하여 오가와·테라오카(小川伸彦·寺岡伸悟 1995:77-97)는 재일한인 중에서 재일제주인의

4) 재일한인의 공헌 관련 연구로는 다음과 같이 다수의 문헌들이 있다. 李求弘(1990) 『海外同胞가 国家發展에 미치는 影響』 『在外韓人研究』 제1호, 재외한인학회, pp.95-124; 차종환(1999) 『해외동포의 본국 공헌과 미래상』 『고포정책자료』 58, 해외고포문제연구소, pp.37-99; 윤인진(2002) 『재외동포 모국투자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재외동포재단 연구보고서; 金正年(2010) 『韓国における在日韓国人企業家の韓国經濟發展への貢獻に対する評価(概要)』 『經濟研究 研究報告』 第23号, 大東文化大学 經濟研究所, pp.9-13; 笠井信幸(2010) 『在日韓国人の組織的祖國支援活動とその特徴』 『經濟研究 研究報告』 第23号, 大東文化大学 經濟研究所, pp.25-35; 佐々木憲文(2010) 『在日韓国人の韓国經濟發展へのさまざまな貢獻』 『經濟研究 研究報告』 第23号, 大東文化大学 經濟研究所, pp.45-49; 林永彦·許成泰(2014) 『在日コリアンの‘愛郷文化’形成と母国との関係に関する研究』 『국제문화연구』 제7(1)집,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pp.1-22.

고향 마을이라는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제주도 기증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재일제주인 사회의 형성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기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高鮮徽(1998)는 해방 전후를 통해 재일 제주인 사회에서 지연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존재로서 출신 지역별로 마을 친목회가 결성되면서 연중행사나 출신 지역에 대한 지원, 일본에서의 상호부조를 강화시켜 나갔다고 한다. 더욱이 제주도 출신들은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출신 마을의 지역발전을 위한 기부와 지원, 제주도 사회와의 상호교류를 충실히 시행하였으며, 교육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했다. 또한 河 明生(2003)은 재일코리안의 기업가활동을 유교적 가치관인 ‘금의환향(錦衣還鄉)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금의환향 지향은 한민족적 소양이 높은 재일한인 1세 기업가들의 지향성을 한마디로 설명한 것이다. 재일한인 1세들은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달성한 후 본국 투자나 고향에 대한 물질적 공헌에 의해 금의환향을 실현하고 있다. 李仁子(2004:7-17)는 제주도 고내리(高内里) 출신자를 중심으로 재일제주인 이주자의 마을에 대한 기부와 고향 관계의 변천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 있다. 이주자 중에는 고향과의 관계를 일절 단절해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동향 출신자 집단이나 조직을 만들어 고향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향수를 서로 느끼고자 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수용하는 사람도 있다. 결국 이주자의 기부는 단순히 금전의 수주(受注)를 넘어 위신과 존엄의 수주, 은의와 감사의 교환으로 게다가 고향 마을과의 정서적 연대의 갈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永野慎一郎編(2010)은 재일한인들이 한국을 포함한 제주도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사례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재일한인들은 한국의 경제개발 자금과 노하우를 제공하였고, 산업계를 비롯한 금융·재정·교육·문화 분야에서도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제주도 사회경제 발전을 비롯한 교육과 지역개발에 재일제주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관훈(2005:151-168)에 따르면 재일제주인의 기증은 지역사회 개발, 교육 및 마을 발전과 제주도 전반의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했으며, 생활수준 개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高광명·진관훈(2006:148-181)은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제주도에의 기증 현상을 고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와 재일제주인 사회가 불신과 갈등을 넘어 서로의 인적·물질 자원을 안정적으

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고 했다. 고광명(2010:217-242)은 재일제주인 사회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의미에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제주인의 기증과 투자 활동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사회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재회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제주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 결국 이는 관광·감귤·레저·금융·제조·지역개발 등 제주도의 눈부실만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李南浩(1981:440-443, 496-498)는 『在日僑胞立志伝-눈물의 閩釜連絡船』에서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서 헌납한 사실과 고향 10여개 마을에 전기를 넣어 준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정휘동(鄭輝東)은 1967년부터 1980년까지 경북 상주(尙州)읍에 학교 비품, 공설운동장 건립, 파출소 신축기금 및 비품, 고등학교 설립기금, 새마을 기금, 체육관 운동기구, 수해의연금, 도쿄올림픽대회, 교토(京都) 한국인학교 설립, 엑스포 한국관 설립기금 등 많은 공헌을 하였다. 또한 재외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132-177)는 마을 도로포장과 다리신축, 마을회관과 경로당 건립, 전화·전기·수도 개설, 학교 건립과 장학회 운영, 정미소와 축사 건립, 감귤묘목 보급 등 고향 마을의 개발에 헌신하여 재일동포들의 공적이 지대한 것이었다고 했다. 고광명(2010)은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김녕리·행원리·월정리·덕천리·선홍1리·선홍2리·성산리)을 중심으로 재일제주인의 기증을 통한 마을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에 대한 애항심이 대단하여 새마을 사업, 전기가설 및 전화사업, 학교 시설, 마을 운영비, 복지회관 건립 등에 많은 협조를 하여 마을 개발에 미친 영향이 컸다.<sup>5)</sup>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2010:437-472)은 『在日濟州人 愛鄉百年』에서 재일 교포의 단성(丹誠)과 지역별(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기증 실적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자료 조사를 통해 학교 설립, 교육시설 및 장학 지원 등 교육 및 인재양성에 재일제주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광명(2011:261-280)은 옹포리 주변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개발을 위한 상수도, 전기·

5) 본고에서 인용한 문헌은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개발사」 김녕리(pp.202-203)·행원리(p.176)·월정리(pp.173-174)·덕천리(p.171)·선홍1리(p.185)·선홍2리(pp.181-182)·성산리(p.184) 등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전화사업 및 학교시설(초등학교 비품, 장학금, 도서구입 등), 마을 경로당과 복지회관 건립, 발전기금 등에 공헌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출신과 대비되는 재일제주인의 제주도 마을 발전 공헌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 제2장 마을 발전에 대한 공헌 활동

제주도는 1946년부터 제주도 전체를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도 출신 재일동포의 재산을 들여다가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제(道制)실시 이후 제주도는 1946년과 비교해 보면 현재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총 인구는 1946년 266천 명에서 2016년 661천 명(2.5배), 공무원 수는 1946년 384명에서 2016년 5,382명(14배), 재정규모는 1946년 1억 원에서 2016년 47,145억 원(47,145배), 관광객은 1970년 245천 명에서 2016년 15,853천 명(64.7배), 감귤생산은 1970년 5만 톤에서 2016년 60만 톤(60,000배), 발전설비(전력 사용량)는 1970년 16MW에서 2016년 1,078.1MW(1일 사용량 12,981 MW), 자동차 등록은 1970년 1,340대에서 2016년 467,243대(1세대 당 1.75대), 상수도 급수는 1970년 30,703톤에서 2016년 444,528톤(1일 1인 급수량 672ℓ), 주택 보급은 1970년 70,595호에서 2016년 221,889호(3.1배),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946년 23억 원에서 2016년 153,661억 원(6,680.9배)으로 급성장하면서 1인당 소득도 8만 8천 원에서 2천 5백 642천 원(2,913.9배)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 외에도 2016년 기준으로 학교 수는 331개소(학생 수 112,334명), 도로는 총 연장 3,165km(포장도 2,713km), 감귤은 식부 면적 20,491ha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도제(道制)실시 이후 제주도 발전상 비교(1946~2016)

구분	단위	1946	1970	1980	1990	2000	2015	2016	신장
인구	천명	266	366	463	515	543	641	661	2.5
공무원 수	명	384	1,265	2,454	3,802	4,218	5,254	5,382	14배
지역내총생산 (도민 1인당)	억원 (천원)	23 (8.8)	240 (66)	3,492 (743)	19,237 (3,781)	55,824 (10,650)	140,869 (24,149)	153,661* (25,642)	6,680.9배 (2,913.9배)
재정규모**	억원	1	29	406	3,177	15,518	42,593	47,145	47,145배
관광객	천명	-	245	260	2,992	4,110	13,664	15,853	64.7배
감귤생산	천톤	0.01	50	188	493	563	635	600	60,000배
발전설비	MW	0.2	16	62	183.2	682.7	886.8	1,078.1	5,390.5배
자동차 등록	대	113	1,340	5,925	43,185	164,360	435,015	467,243	4,134.9배
급수량 (1인 1일)	톤/일 (ℓ)	-(0.14)	30,703 (84)	69,876 (151)	133,427 (259)	173,284 (319)	418,324 (652)	444,528 (672)	14.5배 (4,800배)
주택보급	호	-	70,595	77,095	89,835	129,396	210,979	221,889	3.1배

주: \*지역내총생산과 주택 보급은 2015년 기준, \*\*재정규모는 최종예산액 기준  
 자료: <http://www.jeu.go.kr>(검색일 2017년 12월 27일)

## 1. 재일제주인의 기증 현황

### 1) 연대별 기증 금액

〈표 3〉은 연대별 기증 금액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연대별(금액)로는 1980년대가 11,582,788천 원(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990년대 9,558,225천 원(34.0%), 2000년대 5,265,986천 원(18.7%), 1970년대 1,283,268천 원(4.6%), 1960년대 437,832천 원(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증 금액에서 1980년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주도 체육회에 가장 많이 기부한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금(1,189,870천 원)을 비롯하여 1988년 서울 올림픽 관련 사업(35,000천 원)에 기증한 것과 연관성이 있다. 결국 재일제주인은 제주도 마을 발전 향상에 한 축을 형성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연대별 기증 금액

항목	빈도(천원)	비율(%)
1960년대	437,832	1.5
1970년대	1,283,268	4.6
1980년대	11,582,788	41.2
1990년대	9,558,225	34.0
2000년대	5,265,986	18.7
합계	28,128,099	100.0

주: 1960년대는 1950년대 실적도 포함되어 있으며, 2000년대는 2007년 6월 30일까지임.  
 자료: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実績』에서 조사 작성.

## 2) 연대별 기증 건수

<표 4>는 연대별 기증 건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연대별(건수)로는 1970년대가 2,837건(32.8%)으로 가장 많았으며, 1960년대 1,966건(22.8%), 1980년대 1,825건(21.1%), 1990년대 1,543건(17.9%), 2000년대 469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증 건수에서 1970년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로, 전기·전화, 상·하수도 개설 등과 같은 생활기반 조성사업, 감귤농장 조성, 지역개발 등 공공사업(새마을 사업)과 같은 분야가 제주도 마을 발전에 커다란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표 4〉 연대별 기증 건수

항목	빈도(건수)	비율(%)
1960년대	1,966	22.8
1970년대	2,837	32.8
1980년대	1,825	21.1
1990년대	1,543	17.9
2000년대	469	5.4
합계	8,640	100.0

자료: <표 3>과 동일.

## 3) 사업별 기증 현황

<표 5>는 사업별 기증 현황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사업별로는 교육사업이 18,606,541천 원(66.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사업 7,932,056천 원(28.2%), 문

화사업 744,162천 원(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사업 분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 조성 및 생활수준 향상에서 벗어나 제주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재 양성과 같은 미래지향적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5〉 사업별 기증 현황

항목	빈도(천원)	비율(%)
교육사업	18,606,541	66.2
공공사업	7,932,056	28.2
문화사업	744,162	2.6
기타	845,340	3.0
합계	28,128,099	100.0

자료: <표 3>과 동일.

## 2. 기증자별 공헌 현황

재일제주인의 공헌은 마을 단위별로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와 제주도 간의 사회적 결합의 강도를 파악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 이들의 지역사회 공헌은 수혜를 받은 개인과 친인척들에게 생활수준 향상과 같은 경제적 도움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제주의 지역개발을 비롯한 마을 발전에도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표 6>에서 개인·단체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의 연대별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증 실적은 총 10,102건(29,708,117천 원)으로 이 중 제주도 825건(15,186,463천 원), 제주시 5,415건(10,302,188천 원), 서귀포시 3,862건(4,219,466천 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제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사회 공헌의 수량 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주도에서의 지역사회 공헌 현상과 더불어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중친회, 친목회, 향우회, 동창회 등)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활성화된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표 6〉 재일제주인의 개인·단체를 통한 기증 실적

(단위: 천 원)

지역	연대	개인		단체		전체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제주도	1950년대	0	0	1	500	1	500
	1960년대	18	7,419	22	20,835	40	28,254
	1970년대	211	120,031	73	79,083	284	199,114
	1980년대	265	2,483,289	71	179,182	336	2,662,471
	1990년대	85	2,342,601	24	5,703,373	109	8,045,974
	2000년대	41	3,512,004	14	738,146	55	4,250,150
	소계	620	8,465,344	205	6,721,119	825	15,186,463
제주시	1950년대	36	2,762	9	6,170	45	8,932
	1960년대	1,491	175,285	93	59,869	1,584	235,134
	1970년대	1,772	471,985	70	66,626	1,842	538,611
	1980년대	1,188	6,889,190	60	87,416	1,248	6,976,606
	1990년대	587	2,028,603	17	25,158	604	2,053,761
	2000년대	88	465,129	4	24,015	92	489,144
	소계	5,162	10,032,954	253	269,254	5,415	10,302,188
서귀포시	1950년대	159	6,071	6	5,020	165	11,091
	1960년대	1,225	126,224	41	23,062	1,266	149,286
	1970년대	1,523	473,353	55	60,451	1,578	533,804
	1980년대	573	1,365,417	19	30,034	592	1,395,451
	1990년대	155	1,618,111	13	36,381	168	1,654,492
	2000년대	90	462,726	3	12,616	93	475,342
	소계	3,725	4,051,902	137	167,564	3,862	4,219,466
합계		9,507	22,550,200	595	7,157,937	10,102	29,708,117

자료: &lt;표 3&gt;과 동일.

### 3. 연대별 공헌 현황

<표 7>은 외화(엔화·달러)를 제외한 연대별(현 제주시·서귀포시) 재일제주인의 지역사회 공헌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제주시의 경우 현금은 1985년이 4,050,463천 원(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991년 466,379천 원(120건), 1984년 380,026천 원(28건), 1987년 361,133천 원(47건), 1988년 346,696천 원(9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녕고등학교 신축(3,796,003천 원) 및 운영비(267,256천

원)를 비롯하여 한림읍사무소 신축(120,000천 원), 구좌읍 동북리(64,600천 원)와 세화리(39,500천 원) 복지회관 건립, 함덕리 복지회관 건립(210,000천 원), 함덕리 복지회관 운영비(60,000천 원), 김녕리 초등학교 강당 건립(82,120천 원) 등과 관련되어 있다. 현물은 1984년이 428,803천 원(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989년 243,817천 원(22건), 1998년 109,996천 원(6건), 1988년 106,700천 원(27건), 1990년 53,517천 원(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녕고등학교 부지(406,535천 원)을 비롯하여 삼양2동 마을회관 건립(205,000천 원), 오라1동 마을회관 부지(70,000천 원), 삼양2동 마을회관 부지(60,000천 원), 애월중학교 도서관 건립(120,000천 원) 등과 관련되어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현금은 1996년 473,626천 원(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987년 384,480천 원(41건), 1989년 370,600천 원(39건), 1990년 341,762천 원(52건), 1988년 229,050천 원(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선면 생활체육관 건립(50,000천 원)과 신축(230,426천 원)을 비롯하여 서귀포 문예회관 기당미술관 건립(320,000천 원), 태흥초등학교 복지회관 건립(65,000천 원), 예래동 회관 건립(43,300천 원), 성산회관 마을 건립(50,000천 원) 등과 관련되어 있다. 현물은 1991년 165,905천 원(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987년 66,850천 원(15건), 1984년 53,000천 원(5건), 1983년 35,763천 원(14건), 1982년 28,129천 원(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초등학교 급식소 시설(108,000천 원)을 비롯하여 동남초등학교 도서관 건립(40,000천 원), 표선면 오일장 부지(50,000천 원), 동남초등학교 교육시설(22,000천 원), 대정여자고등학교 비품과 운동장 확장(19,686천 원) 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최초로 전국소년체전이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면서 제주도 출신자에 대한 제주도와 체육회 단위의 기증 요청으로 인해 이에 대한 부응도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기증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버블경제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재일기업가들의 주력 업종 중에서 부동산이나 유기업 등 대부분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분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요청과 기대가 투자 형태로 변환, 제주도민 생활수준 향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표 7〉 연대별 제일제 주인 공헌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제주시				서귀포시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1966년 이전	109,352	351	13,576	224	48,371	315	19,828	172
1967	17,044	98	19,343	95	40,324	55	2,855	42
1968	15,828	50	5,922	75	32,968	31	5,748	38
1969	39,993	59	4,037	79	17,245	101	10,847	40
1970	21,726	39	5,567	39	149,694	41	10,868	59
1971	28,396	72	9,854	44	19,673	77	3,753	45
1972	44,516	107	11,743	61	9,764	44	21,460	60
1973	62,143	142	10,670	73	62,524	164	6,885	50
1974	37,271	108	9,842	67	88,897	125	7,302	51
1975	21,813	132	6,500	39	58,283	54	5,718	43
1976	52,728	76	30,777	41	51,134	68	5,635	26
1977	42,567	110	26,420	26	32,900	23	23,387	21
1978	48,182	54	14,170	49	29,364	48	11,781	35
1979	22,350	49	24,042	53	51,890	47	5,634	20
1980	97,677	84	20,135	50	121,239	54	24,480	33
1981	50,532	53	19,852	32	65,090	35	12,504	24
1982	61,683	42	9,466	21	39,592	32	28,129	19
1983	112,855	31	10,560	20	10,850	22	35,763	14
1984	380,026	28	428,803	27	29,920	14	53,000	5
1985	4,050,463	30	35,334	29	81,750	20	7,623	9
1986	67,600	27	41,123	35	196,850	56	14,400	10
1987	361,133	47	39,207	21	384,480	41	66,850	15
1988	346,696	91	106,700	27	229,050	21	20,426	14
1989	205,450	37	243,817	22	370,600	39	12,819	14
1990	121,501	38	53,517	42	341,762	52	26,615	14
1991	466,379	120	15,566	13	11,870	14	165,905	9
1992	48,048	22	28,981	12	20,000	7	16,850	6
1993	137,897	48	16,000	10	241,600	7	14,200	5
1994	75,835	19	1,500	1	24,500	2		
1995	145,388	50	11,000	1	261,100	8	8,582	3
1996	83,017	28	1,500	2	473,626	35		
1997	61,384	15	14,200	3	35,814	8	2,000	1
1998	213,580	33	109,996	6	40,413	3	1,000	1
1999	275,360	64			18,000	6	500	1
2000	70,031	5	15,000	1	70,938	25		
2001	22,000	2	7,857	1	107,216	42		
2002	47,200	17	8,600	2	183,988	15		
2003	47,200	17	8,600	2	67,000	6	35,000	1
2004	36,305	6	2,500	1	200	1		
2005	32,100	6			1,000	1		
2006	15,551	5	3,000	1	10,000	1		
2007	80,000	3						

자료: &lt;표 3&gt;과 동일.

### 제3장 마을 발전에 대한 공헌 특성

#### 1. 지역별 마을 발전 공헌 현황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속해 있던 섬(島)이었으나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하여 ‘도(道)’로 승격하였으며, 2006년 7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특별자치도(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제주도에는 제주(濟州)·대정(大靜)·정의(旌義) 등 3개 도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주도 북쪽의 제주시(구 제주시와 북제주군)와 남쪽의 서귀포시(구 서귀포시와 남제주군)가 중심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1946년 도제실시 이후 형성된 마을 중에서 제주시(4읍 3면 15동), 서귀포시(3읍 2면 12동)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헌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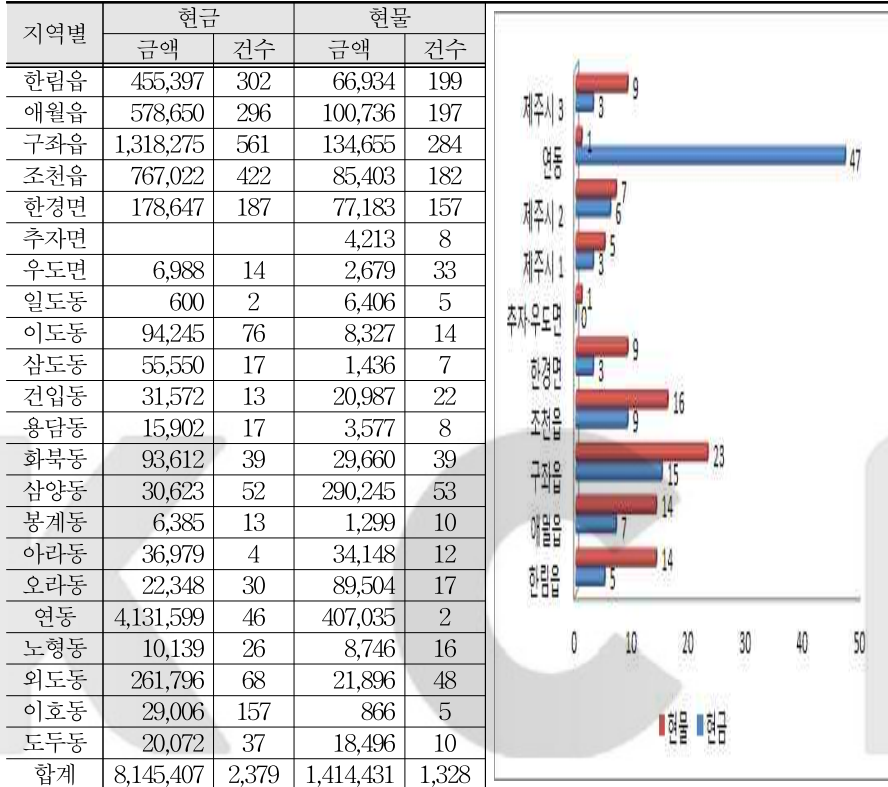
##### 1) 제주시(구 제주시와 북제주군)

<표 8>은 지역별 마을 발전(제주시)에 대한 공헌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제주시의 경우는 현물(학교 비품 및 부지, 사무소 비품, 체육 용품, 소방대기기 구입 등)에 비해 현금(학교 설립, 교문 건립, 학교 비품, 증축 기금, 사무소 운영비 및 건립, 개발자금, 전기가설, 상수도 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건립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는 연동, 구좌읍, 조천읍, 애월읍, 한림읍 등이 다른 지역(읍·면·동)에 비해 많은 금액(건수)을 공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남녕고등학교 교실신축 및 운영비(3,796,003천 원), 1999년 김녕 마을회관 건립 및 성금(246,600천 원), 1984년 함덕·조천리 복지회관 건립(306,000천 원), 1983년 애월상업고등학교 부지(100,000천 원), 1985년 한림 읍사무소 신축(120,000천 원) 등과 관련성이 있다. 현물로는 연동, 구좌읍, 애월읍, 조천읍, 한림읍 등이 다른 지역(읍·면·동)에 비해 많은 금액(건수)을 공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4년 남녕고등학교 토지(406,535천 원), 1990년 구좌읍 사무소 비품 및 교육시설 지원(18,120천 원), 1988년 애월상업고등학교 야외학습장 공원조성(18,200천 원), 1977년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토지(21,689천 원), 1999년 한림중학교 비품(11,000천 원) 등과 관련성이 있다.

〈표 8〉 마을 발전에 대한 공헌 현황(제주시)

(단위 : 천 원, %)



주: 제주시 1(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제주시 2(화북동, 삼양동, 봉계동, 아라동, 오라동), 제주시 3(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자료: <표 3>과 동일.

2) 서귀포시(구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표 9>는 지역별 마을 발전(서귀포시)에 대한 공헌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현물(학교 및 사무소 비품, 진료소 비품, 체육시설, 교육자료 및 도서, 경찰서 비품, 음악 용품, 학교 토지 등)에 비해 현금(교문 및 정문 건립, 도서관 및 사무소 건립, 상수도 시설, 마을회관 건립, 문화시설, 운동기구 구입, 학교 시설비, 전기가설, 창고 건립, 장학금, 학교 비품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는 표선면, 대륜동,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등이 다른 지역(읍·면·동)에 비해 많이 공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표선면 생활체육관 건립 및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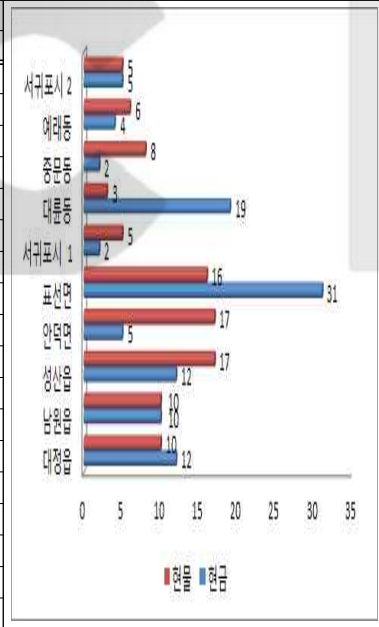


(413,626천 원), 1987년 대륜동 서귀포 문예회관 기당미술관 건립(320,000천 원), 1993년 신도2리 마을회관 건립(102,000천 원), 1989년 태흥초등학교 복지회관 및 태흥2리 노인회관 건립(115,000천 원), 1988년 성산리 마을회관 및 수산1리 노인회관 건립(80,000천 원) 등과 관련성이 있다. 현물로는 성산읍, 표선면, 대정읍, 남원읍, 대륜동 등이 다른 지역(읍·면·동)에 비해 많이 공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동남초등학교 급식소 시설(108,000천 원), 1984년 표선면 오일장 토지(50,000천 원), 대정고등학교 비품 및 대정여자고등학교 운동장 확장(19,686천 원), 1991년 하례초등학교 시설(55,000천 원), 1977년 법환리 도로 보수(19,500천 원) 등과 관련성이 있다.

〈표 9〉 마을 발전에 대한 공헌 현황(서귀포시)

(단위: 천 원)

지역별	현금		현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대정읍	394,862	192	78,116	73
남원읍	342,881	101	73,932	155
성산읍	280,118	214	224,871	205
안덕면	203,147	330	29,679	91
표선면	1,262,807	295	109,475	99
송산동	12,429	36	12,619	24
정방동	3,018	14	2,118	11
서홍동	5,010	27	19,456	18
동홍동	13,390	7	470	2
천지동	4,523	5	420	2
중앙동			500	1
중문동	87,468	164	12,988	46
효돈동	130,078	22	9,868	41
영천동	11,181	24	19,155	9
대륜동	810,108	71	32,141	54
대천동	23,004	32	2,229	26
예래동	150,026	115	9,456	30
	3,734,050	1,649	637,493	887



주: 서귀포시 1(송산동, 정방동, 서홍동, 동홍동, 천지동, 중앙동), 서귀포시 2(효돈동, 영천동, 대천동)

자료: <표 3>과 동일.

## 2. 마을 발전에 대한 공헌 특성

### 1) 지역별 공헌 특성

<표 10>은 지역별 공헌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기증 실적은 총 13,931,380천 원(6,243건) 중에서 읍 지역 4,901,852천 원(3,383건), 면 지역 1,874,818천 원(1,214건), 동 지역 7,154,710천 원(1,646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이 다른 읍·면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재일제주인의 이주자 수와 금액(건수), 마을 단위 네트워크, 개인적·지역적 단위에서 주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적 지원, 동정심, 사회적 명예, 도·시·군 단위의 요청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표 10〉 지역별 공헌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읍(邑) 지역		면(面) 지역		동(洞) 지역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제주시	3,507,072	2,443	269,710	399	5,783,056	865
서귀포시	1,394,780	940	1,605,108	815	1,371,654	781
계	4,901,852	3,383	1,874,818	1,214	7,154,710	1,646

자료: <표 3>과 동일.

### 2) 종류별 공헌 특성

<표 11>은 종류별 공헌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현금(11,879,456천 원, 4,028건)이 현물(2,051,924천 원, 2,21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동 지역(7,154,710천 원)이 읍 지역(4,901,852천 원)과 면 지역(1,874,818천 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건수별로는 읍 지역(3,383건)이 면 지역(1,214건)과 동 지역(1,646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0~70년대에는 현실적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생활개선, 경제발전의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지역사회 개발, 관광산업, 새마을 사업 등 마을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고향의 마을 발전을 위해 재일제주인의 지역 네트워크, 즉 제주도 출신들이 마을 단위의 친목회와 국내에 있는 형제·친족·친지의 요청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종류별 공헌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읍(邑) 지역		면(面) 지역		동(洞) 지역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현금	4,137,205	2,088	1,651,589	826	6,090,662	1,114
현물	764,647	1,295	223,229	388	1,064,048	532
계	4,901,852	3,383	1,874,818	1,214	7,154,710	1,646

자료: <표 3>과 동일.

3) 연대별 공헌 특성

<표 12>에서 연대별 흐름에 따른 기증 실적은 1960년대 404,867천 원(1,812건), 1970년대 1,170,253천 원(697건), 1980년대 8,315,927천 원(1,205건), 1990년대 3,529,986천 원(697건), 2000년대 507,344천 원(56건)으로 나타났다. 기증 금액 면에서 1980년대가 가장 많은 것은 1960년대 이후 재일제주인의 재산반입이 허용되고 모국방문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마을 발전에 대한 열의에 보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60~70년대 동정심, 애향심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취에 대한 보람, 사회적 위신과 명예 등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표 12〉 연대별 공헌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읍(邑) 지역		면(面) 지역		동(洞) 지역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1960년대	219,339	856	92,573	373	92,955	583
1970년대	525,550	1,312	457,238	528	187,465	634
1980년대	2,332,153	724	535,124	221	5,448,650	260
1990년대	1,576,055	452	769,883	90	1,184,048	155
2000년대	248,754	39	20,000	2	238,590	15
합계	4,901,851	3,383	1,874,818	1,214	7,151,708	1,647

자료: <표 3>과 동일.

4) 수증기관별 공헌 특성

<표 13>에서 수증기관에 따른 기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는 7읍(邑), 5면(面), 27동(洞)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기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

다. 읍 지역의 경우는 구좌읍, 면 지역의 경우는 표선면, 동 지역의 경우는 제주시 3(서부) 지역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 기증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 면에서 읍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일제주인의 인구와 마을 단위의 사회적 네트워크(친목회, 향우회 등)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활성화된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제주시 일부(학교건립기금)를 제외하면 면·동 단위의 기증 금액 규모보다 읍 단위의 기증 금액이 훨씬 크고, 기증 규모도 발전기금, 회관건립 등 현금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마을 발전을 위해 제주도 출신들에게 각 읍에 의해 기증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표 13〉 수증기관별 공헌 현황

(단위: 천 원)

읍(邑) 지역			면(面) 지역			동(洞) 지역		
수증기관	금액	건수	수증기관	금액	건수	수증기관	금액	건수
한림읍	522,331	501	한경면	255,830	344	제주시 1	238,602	181
애월읍	679,386	493	추자면	4213	8	제주시 2	634,803	269
구좌읍	1,452,930	845	우도면	9,667	47	제주시 3	4,909,651	415
조천읍	852,425	604	안덕면	232,826	421	서귀포시 1	73,953	147
대정읍	472,978	265	표선면	1,372,282	394	서귀포시 2	1,297,702	634
남원읍	416,813	256						
성산읍	504,989	419						
합계	4,901,852	3,383		1,874,818	1,214		7,154,711	1,646

주: 제주시 1(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제주시 2(화북동, 삼양동, 봉계동, 아라동, 오라동), 제주시 3(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 1(송산동, 정방동, 서홍동, 동홍동, 천지동, 중앙동), 서귀포시 2(중문동, 효돈동, 영천동, 대륜동, 대천동, 예래동)

자료: <표 3>과 동일.

## 결론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제주도 마을 발전에 대한 공헌을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일제주인은 제주도(제주도청, 교육청, 시청, 군청 등)를 비롯하여 각

읍·면·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마을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둘째, 재일제주인은 교육사업, 공공사업, 문화사업 등 제주지역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셋째, 재일제주인은 새마을 사업과 같은 도로포장, 전기·전화, 상·하수도 개설 등 사회기반 시설 조성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넷째, 재일제주인은 가족이나 친척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 발전 공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섯째, 재일제주인은 제주도 마을 발전 향상에 한 축을 형성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설립, 교육시설 및 장학 지원, 비품 구입, 마을회관 건립, 노인회관 건립, 새마을 사업, 문화시설, 체육시설, 언론매체, 불우이웃 돕기, 이재민 성금, 도내 주요시설 건립 기금,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재일제주인의 제주도 마을 발전에 대한 공헌 활동과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재일한인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한인사회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제주도민들은 재일한인의 공헌(기증) 활동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면서 재일제주인의 삶이 지니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재일제주인의 애향심은 제주사회의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보완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2007)가 재일제주인의 기증 목록을 수록한 『愛郷의 보람-在日同胞寄贈実績』을 가지고 전개하였으므로 자료 수집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2007)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지만 향후에는 읍·면·동 사무소,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교 등 최근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이전 기증(현금과 현물)한 원화를 중심으로 고찰을 시도하였지만 향후에는 외화(엔화·달러) 등 그 당시의 화폐 가치 환산을 통해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재일제주인의 고향에 대한 기부 활동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기부자가 자신의 기록을 남긴 경우는 극히 적어서 체계적으로 계량화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 ■ 참고문헌

- 고광명(2014) 「일본의 고무공업과 재일제주인 기업가」 『재일제주인과 마이너리티』,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p.18.
- 민기·고광명(2014) 「제주인의 역량 극대화를 위한 재외제주도민 거버넌스 구축방안」 『2014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 희망포럼』,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 pp.9-29.
-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4) 『재일제주인 기업가 현황 및 실태 조사 보고서』, p.37.
- 고광명(2013) 『재일(在日)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p.23-26.
- \_\_\_\_\_ (2011) 「생산과 경제」 『옹포천 주변 마을의 자연과 생활문화』, (재)제주고고학연구소, pp.261-280.
- \_\_\_\_\_ (2010a) 「개발사」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김녕리·행원리·월정리·덕천리·선흘1리·선흘2리·성산리)』,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 \_\_\_\_\_ (2010b)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과 투자활동」 『日本近代学硏究』 27, 韓國日本近代学会, pp.217-242.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2010) 『在日濟州人 愛郷百年』, pp.437-472.
-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pp.132-177.
-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実績』
- 고광명·진관훈(2006)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社会科学硏究』 14(1), 西江大學校 社会科学硏究所, pp.148-181.
- 진관훈(2005) 「재일제주인들의 「고향」 제주에의 기증에 관한 연구」 『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외 발표 자료집, pp.151-168.
- 윤인진(2002) 『재외동포 모국투자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재외동포재단 연구보고서.
- 차중환(1999) 「해외동포의 본국 공헌과 미래상」 『교포정책자료』 58, 해외교포문제연구소, pp.37-99.
- 李求弘(1990) 「海外同胞가 國家發展에 미치는 影響」 『在外韓人硏究』 제1호, 재외한인학회, pp.95-124.
- 李南浩(1981) 『在日僑胞立志伝-눈물의 閨釜連絡船』, 三寶文化史, pp.440-443·496-498.
- 林永彦·許成泰(2014) 「在日コリアンの「愛郷文化」形成と母國との關係に関する硏究」 『국제문화硏究』 제7(1)집, 조선대학교 국제문화硏究원, pp.1-22.
- 入管協會(2012) 『在留外國人統計』, pp.10-11.
- 金正年(2010) 「韓國における在日韓國人企業家の韓國經濟發展への貢獻に対する評價(概要)」 『經濟硏究 硏究報告』 第23号, 大東文化大學 經濟硏究所, pp.9-13.
- 笠井信幸(2010) 「在日韓國人の組織的祖國支援活動とその特徴」 『經濟硏究 硏究報告』 第23号, 大東文化大學 經濟硏究所, pp.25-35.
- 佐々木憲文(2010) 「在日韓國人の韓國經濟發展へのさまざまな貢獻」 『經濟硏究 硏究報告』 第23号, 大東文化大學 經濟硏究所, pp.45-49.
- 永野慎一郎編(2010) 『韓國の經濟發展と在日韓國企業人の役割』, 岩波書店.
- 李仁子(2004) 「移住者の故郷への寄付と故郷づきあいの変遷」 『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

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 文部省科学研究費 国際学術研究報告書, pp.7-17.

河 明生(2003), 『マイノリティの起業家精神：在日韓人事例研究』, ITA.

高鮮徽(1998) 『20世紀の滞日済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 明石書店.

庄谷怜子・中山 徹(1997) 『高齢在日韓国・朝鮮人-大阪における「在日」の生活構造と高齢福祉の課題』, 御茶の水書房, p.95.

小川伸彦・寺岡伸悟(1995) 「在日社会から「故郷」済州道への寄贈-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地縁結合」『社会学論集』 第2号, 奈良女子大学, pp.77-97.

<http://www.jeju.go.kr>(검색일 2017년 12월 27일)

DOI : 10.18075/jcs..66.201804.5



## ■ Abstract

### A Study on the Contribution of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to the Development of Villages in Chejudo

Ko, Kwang-Myong

This study examines the contribution of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to the development of villages in Chejud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played a large role in the development on the level of Chejudo(i.e. provincial office, education offices, municipalities and county offices of Chejudo) and villages of each Eup, Myeon and Dong. Second,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Jeju region in the areas of education, public works, and culture. Third,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contributed greatly to the establishment of social infrastructures such as road pavement, electricity, telephone, and water and sewage systems as seen in the Saemaul Movement Project. Fourth,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made a lot of effort to develop villages through the human network including as family and relatives. Fifth,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occupied a large portion and played a large role in developing villages of Chejudo.

Key words :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Chejudo, development of village, donation, contribution

## ■ 日本語抄録

### 在日済州人の済州道の村の発展に関する考察

高広明

本研究は在日済州人の済州道の村の発展に関する研究で、その結果を総合すれば次のように要約できる。第一に、在日済州人は済州道(済州道庁・教育庁・市庁・郡庁など)を初めとして各の邑・面・洞に至るまで村の発展に大きな役割をしてきた。第二に、在日済州人は教育事業、公共事業、文化事業などの済州地域の発展に大きな貢献をしてきた。第三に、在日済州人はセマウル事業のような道路舗装、電気・電話、上下水道の開設など社会基盤施設の造成に多くの貢献をしてきた。第四に、在日済州人は家族及び親戚だけではなく人的ネットワークを通じて村の発展に多くの努力を果たしてきた。第五に、在日済州人は済州道の村の発展の向上に一つの柱を形成するのに、多くの比重を占めながら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

キーワード：在日済州人、済州道、村の発展、寄贈、貢献

<필자인적사항>

성 명: 고광명

소 속: 제주대학교 제일제주인센터 특별연구원(前)

연락처(이메일): kkm0630@jejunu.ac.kr

투고마감일: 2018.1.31

심사개시일: 2018.2.15

게재확정일: 2018.03.15